

광주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FINA 총회 투표 없이 합의 결정
2019년 7월 202개국 2만명 참여



관련기사 2·3·4·5·15면

오는 2019년 7월 광주에서 전 세계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지난 19일 낮 12시 30분(현지시간), 세계수영대회 개최지가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팔라우 세인트(Palau Saint Jordi) 경기장 콘퍼런스 룸에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광주를 확정 발표했다. 2021년 개최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결정됐다.

이날 팔라우 세인트 경기장에서 FINA 홀리오 마글리오 회장이 "투표 없이 합의로 결정했다"며 2019 수영대회 개최지로 '광주 코리아'를 발표하자,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등 발표장에 참석한 광주 대표단 100여 명이 일제히 환호했다.

이에 앞서 집행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바르셀로나 그랑 마리나호텔에서 열린 FINA 총회에서 두 도시의 프레젠테이션을 심사했다. 강운태

시장이 직접 나선 광주시의 프레젠테이션은 집행위원들로부터 "탁월(Excellent)하며,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을 정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광주가 유치에 성공한 비결로는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유치전략, 그리고 한 장소에서 모든 경기와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아쿠아스틱 콤플렉스(Aquatic Complex) 조성 계획이 주요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또, 150만 광주 시민의 절대적인 유치 열기와 함께, 2년여에 걸친 치밀한 준비와 전방위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제 스포츠계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FINA 집행위원과의 깊은 교감 등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된다.

광주시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협조,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 달 동안 202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국제 규격에 맞는 스포츠·숙박 시설, 선수촌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세계수영대회 메인 경기장은 현재 신축 중인 U대회 수영장을 활용한다. FINA 기준에 맞춰 수구, 싱크로나이즈드 수영, 오픈워터 경기장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U대회 방식과 마찬가지로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선수촌 건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회 성공 개최의 열쇠가 되는 자원봉사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양성하기로 했다.

한편, 2019 세계수영대회는 2019년 7월 한 달간 챔피언십(국가대표 경기)과 마스터스(아마추어 경기)대회로 나눠 열리며 경영과 다이빙, 수구, 싱크로나이즈, 오픈워터 등 5개 종목에 202개국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다. /홍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에 성공한 강운태 광주시장과 조호권 시의회 의장, 임내현 국회의원 등 유치단 일행이 21일 오후 광주공향에 도착, 시민들의 환영에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계수영선수권 '공문서 위조' 파문

정부 "총리 사인 등 위조 확인" 姜시장 고발키로
광주시 "실무자 단순 실수...법적으로 문제 없어"

정부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국무총리 사인 등을 위조한 혐의로 강운태 광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였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관계자는 "2019 세계수영대회 유치에 나선 광주시가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유치 의향서 중 정부의 재정 지원

을 보증하는 서류에 김창식 전 국무총리와 최광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최종 개최지 발표가 나면 강 시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FINA에 제출한 유치 의향서 초안에 '정부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비슷한 1억 달러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포함했다. 이 문서에 들어간 김 전 총리와 최 전 장관의 사인을 정부 승인인이 위조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9~5월 1일 FINA 현지실사단이 정호원 국무총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발견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

은 광주시는 FINA에 제출한 위조된 초본 문서를 파기하는 대신 정부의 동의를 얻어 구체적인 액수를 삭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지원문서로 중간본과 최종본을 제출했다.

강 시장은 개최지 선정 이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고발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강 시장은 개최지 선정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정부가 고발 방침을 알린 데 대해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고, 문제도 해결했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를 자행해 개탄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광주시는 실무자의 실수로 문서가 위조됐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최종 제안서 이전에 제출한 의향서는 의미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고발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진기기자lucky@kwangju.co.kr

알림

광주일보-광주비엔날레재단 공동
'광주문화포럼' 열립니다

광주일보사는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 이용우)과 공동으로 '광주문화포럼'을 운영합니다. '시각문화예술 전반과 인문·사회 관련 주요 이슈와 비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화포럼은 시각문화와 인문사회 분야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시: 7월24일~12월18일,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4시 (7월만 오후 3~5시)
 - 장소: 광주비엔날레 제문헌 3층 컨퍼런스룸
 - 신청방법: 홈페이지 참조(www.gwangjubienalle.org), 문의 062-608-4244.
- ※수강료는 전액 무료. 선착순 80명 입장.

7월24일=가복 털 토끼 풀 /최정화

미술가, 일민 예술상(2005), 올해의 예술상(2006), 2012 세계비엔날레대회 회원장 연출, 광주·시드니·리버풀·리옹 비엔날레 등 참여



8월21일=오늘날 큐레이팅이란 무엇인가?/마리아 린드

스톡홀름 아트센터 관장, 2002년 상파울루비엔날레 커미셔너, 전 뉴욕 바드 칼리지 대학원 큐레이터학과장, 독일·미국·영국·브라질 등에서 큐레이터 활동



9월25일=디자인, 거시기 머시기 /이영혜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콘텐츠 미디어 그룹 ㈜디자인하우스 대표이사, 서울립디자인페어·서울 디자인페스티벌 전시 기획



10월16일=미디어아트에겐 뭔가 특별한.../박영욱

속명여대 교수, 저서 '미디어아트는 X예술이다' '매체, 매체예술 그리고 철학' '철학으로 대중문화 읽기' '데리다&틀리즈-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등



11월20일=예술 자본주의의 비명 /이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세계비엔날레협회 초대 회장, 전 뉴욕 매체예술센터 관장, 전 고려대 교수, 저서 '비디오예술론'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 등



12월18일=현대미술과 법 /안경환

서울대 법대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예술의전당 이사, 저서 '법과 문화 사이'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조영래 평전' 등



르노삼성자동차 판매대리점 모집
르노삼성자동차와 함께 할 열정적인 판매 대리점 대표님을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2013. 7. 22(월) ~ 2013. 7. 25(목)
- 지원서류: 요청자에 한해 이메일로 개별 송부
-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사규/남구, 전남북 일부
-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본사 실용면접
- 문의처: 르노삼성자동차 호남지역본부 담당자 (062-942-4567)

르노삼성자동차는 고객 여러분의 성원과 우수한 제품을 바탕으로 직간접인 강화를 거듭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 원서접수: 8월 5일(월) - 16일(금)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게임은 즐거운 놀이충전입니다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주고 계십니까?
공부로 지친 청소년에게도 그들만의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착한 게임 이용, 재충전의 활력소가 됩니다

· 함께 만들어 가는 건전 게임 문화 ·

예방교육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하고 즐거운 게임 이용을 위해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
▶교육 신청: www.gs.school.or.kr ▶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1566-1114

진단/상담 전국 45개 Wee 센터에 게임과몰입 전문 상담사를 배치, 맞춤 상담 시행
▶상담 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 1566-1114

전문치료 게임 부작용 해소 및 건전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해 상담치료센터, 게임브레인포럼, 게임클리닉 운영
▶치료 문의: 게임문화재단 02-586-355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게임문화재단